

「壬辰錄」說話의 文學的 價値

蘇 在 英*

- | | |
|-------------------|------------------|
| 1. 緒 論 | ㉠ 追放되는 李如松 |
| 2. 個別 說話의 分析論 | ㉡ 歷史的 根據 |
| (1) 泗溟堂의 降倭說話 | (4) 關雲長의 陰助說話 |
| ㉠ 生涯의 追跡 | ㉠ 關羽奉祠 |
| ㉡ 泗溟堂의 道術 | ㉡ 關羽信仰의 轉移 |
| ㉢ 說寶和尚의 偉容 | ㉢ 關雲長의 陰助 |
| (2) 金應瑞·姜弘立의 征倭說話 | (5) 崔日景의 解夢·忠言說話 |
| ㉠ 兩將의 人物像 | ㉠ 說話의 性格 |
| ㉡ 征倭와 民族意識 | ㉡ 崔日景의 正體 |
| (3) 李如松의 援兵說話 | 3. 結 論 |
| ㉠ 如松의 特집 | |

1. 緒 論

壬辰錄은 壬亂說話의 集大成體이므로 說話文學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작품의 가치는 결코 歷史的 事實性에서단은 기대하기 어렵다. 說話는 어떤 意味에선 反歷史的 現象을 重視하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특히 壬辰錄의 경우는 壬辰倭亂이라는 民族的 역사 체험을 계기로 民衆 속에서 傳承되어온 說話의 性格을 지니고 있어 잘만 解釋한다면, 歷史가 오히려 發見하지 못하고 意識하지 못했던 民衆社會의 意識과 所望을 抽出해낼 수 있는 풍부한 資源들을 간직하고 있다. 게다가 이 作品은 侵略國인 倭와 援兵國인 明의 角逐 사이에서 지탱해온 民衆들이 직접 體驗한 自省과 所望, 屈辱과 憤怒들이 응어리져 이룩된 作品이므로 이의 研究는 바로 그들의 意識을 찾아 오늘에 되살리는 作業이기도 하다. 이 作品에 대한 異本이나 個別 說話의 分析도 결국 이를 밝히기 위한 前提를 생각할 때, 說話의 文學的 價値를 追跡하는 作業이야말로 壬辰錄 연구의 가장 核心이 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필자가 20여편의 異本들을 수집하여 比較 分析해 본 결과에 의하면, 첫째 이 作品의 藍本은 당시 역사기록의 편집물인 漢文本(藏書閣本)이 대표적이고 이가 小說化 過程에서

* 文理科大學(서울) 副敎授

國立圖書館 漢文本, 다시 번역과정에서 京板本 崇田大本의 異本을 낳았으며, 둘째 이러한 歷史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意圖의 說話들이 加味된 黑龍日記 延世大本 鄙本A 鄙本B 등이 派生되었으며, 세째 둘째와는 相異한 說話를 바탕으로 한 漢文本系列로 權寧徹本 李明善本 高大本 慶北大本 등을 들 수 있고, 네째 歷史성이 전혀 無視되고 傳承說話가 바탕이 된 國立圖書館本 黑龍錄 李能雨本(B) 金良善本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說話만을 意圖의으로 拔萃 編輯한 느낌을 주는 작품으로 李能雨本(A.C) 鮮壬錄(鄙藏) 金完燮本 등 크게 다섯 갈래로 分類된다. 필자는 이미 이러한 類型을 網羅하여 그 話素들을 整理하여 한편의 完型 「壬辰錄」을 復元한 바 있다¹⁾.

壬辰錄이 民衆의 것임을 前提할 때 이 작품 속에는 크게 두 갈래의 意識의 흐름이 엿보인다. 外的인 民族感情과 內的인 民衆의 所望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다. 前者를 膨脹과 憤怒로 표현한다면 後者는 收縮과 自省이란 표현으로 表裏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미 異本研究에서, 작품의 構成面으로 볼 때 가장 意圖의이며 說得力을 지닌 話素로 10餘種을 나열한 바 있는데, 그중에서 이 作品의 骨格이 되고 있는 泗溟堂의 降倭說話, 金應瑞·姜弘立의 倭國征伐說話, 李如松의 援兵 및 追放說話, 關雲長의 陰助·督戰說話, 崔日景의 流配·忠言說話를 선정하여 이에 分析 檢討하려 한다²⁾.

2. 個別說話의 分析論

(1) 泗溟堂의 降倭說話

㉠ 生涯의 追跡

泗溟堂의 俗姓은 任氏, 名은 惟政 字는 離幻이라 하였으며 호는 松雲(泗溟은 自號) 慈通弘濟尊者의 諡號를 받았다. 그의 증조 孝昆은 문과에 올라 掌樂院正으로 大邱에서 벼슬을 지냈으므로 密陽에서 살았다. 그가 幼學 宗元을 낳고 宗元이 校生 守成을 낳았다. 惟政은 守成과 達城徐氏 사이에서 1544년(중종 39)에 태어나 僧臘이 57이 된다. 先妣가 海산하던 날 꿈에 白雲을 타고 黃巾을 쓴 金人을 이끌고 만길되는 높은 臺에 올라간즉 늙은 神仙이 그 위에 걸터 앉았으므로 곧 예배하고 깨어서 師를 낳았다고 한다. 13세 때 柳村 黃汝獻을 師事하다가 黃岳山 直指寺에 들어가 信默和尚에게서 禪을 받아 僧侶生活을 출발하였으며, 17세에 禪科에 급제하여 朴思菴, 李鳶溪, 高鬻峯, 許筠, 林悌 등 士大夫들과 교유, 31세 때 禪宗住持로 추대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妙香山에 들어가 淸虛(休靜)의 제자가 되었다. 임란 당시 그는

1) 拙稿, 「壬辰錄 異本研究」(未發表, 韓國研究院叢書로 刊行 예정) 1979. 金淳休, 「壬辰錄攷」(東岳語文論集 4 집) 1966. 참고

2) 拙稿, 「壬辰錄의 意識世界」(朴晨義教授回甲論文集) 1977. 「壬辰錄研究」(崇田語文學 1 輯) 1972. 참고

48세로 金剛山 楡岾寺에 있었는데 義僧軍을 모집하여 왜군에 저항하였으며 환도 후 西山大師의 都摠攝직을 물려받고 전 의승군을 통수하였다. 50세 때는 明 摠兵 劉綎과 의논하고 왜장 加藤清正을 울산 진중으로 세 차례나 방문 和議談判을 하였으며, 丁酉再亂 때는 明將 麻貴와 島山에서, 이듬해는 劉綎을 따라 曳橋에서 공을 세웠다. 60세에는 國書를 가지고 일본에 修信使로 건너가 德川家康을 만나 講和를 맺고 그곳에 잡힌 被虜 三千餘名을 데리고 귀국하였다. 그의 환국은 淸虛 入寂의 이듬해가 되는데, 宣祖의 표창을 사양하고 雉岳山에 입산하였다가 국왕의 訃報로 다시 還俗 拜哭한 후, 병을 얻어 伽倻山 海印寺 弘濟庵에서 67세(1610)를 일기로 跏趺座하여 세상을 떠났다.

許筠은 동방불교의 계맥을 말하여, 牧牛(知訥)와 江月(懶翁)의 道脈을 西山(淸虛)이 이었으며, 西山의 도맥이 다시 惟政을 통해 계승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泗溟이 직접 日本陣을 내왕하며 강화의 주역 노릇을 했고, 또 종전 후 三千被虜를 돌려온 장본인인 만큼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민중들의 승리의 소망이 法力과 道術을 빌어 泗溟神話를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³⁾.

㉠ 泗溟堂의 道術

「泗溟堂傳」에 의하면, 그는 가정생활을 통한 환멸과 갈등이 강한 動機가 되어 世俗을 등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곧 金剛山으로 들어가 西山大師의 高弟가 된다. 壬亂이 발발하자 大駕가 황망히 義州로 파천하고 굴욕적 청병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西山大師의 명으로 惟政 處英 등이 모은 僧軍 五千이 戰勢를 크게 좌우한다. 沈惟敬과의 講和가 계속되는 동안 倭將 加藤의 講和 五條約이 제시되나 惟政에 의해 강경히 부정된다. 전쟁이 끝난 뒤 惟政은 다시 西山大師의 친거로 講和使가 되어 日本으로 건너간다. 倭王은 갖은 모략으로 그를 해치려 한다. 눈 쌓인 산속에 굶겨 가두기도 하고 下獄시켜 온갖 苦楚를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法力으로 눈을 녹이고 배를 불리고 감옥을 뚫는다. 끝내 倭王이 먼저 죽고 惟政은 일본에 포로된 朝鮮人 五千을 거느리고 돌아와 임란을 매듭짓고 泗溟堂이란 堂號를 하사받는다⁴⁾.

「泗溟堂傳」에서 惟政이 받던 시험이 「甲辰錄」에는 다음과 같은 〈生佛의 시험〉으로 나타난다.

- ① 일단 팔천 간 병풍서를 외우게 하다.
- ② 승당에 유리방석을 띄워 앉게 하다.
- ③ 무쇠 집에 가두어 태워 죽이려 하다.
- ④ 무쇠 말을 달구어 타게 하다.

3) 許筠, 有明朝鮮國慈通弘濟尊者 泗溟松雲大師 石藏碑銘 并序 참고

4) 「泗溟堂傳」은 家庭小說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任進士(유정)의 아들이 新婚初夜에 피살되는 慘變을 겪고, 자부인 韓夫人의 지혜로 범인이 後娶 金夫人과 奴僕 李春三임을 밝혀 내오는 가정에 幻滅을 느껴 집을 불태우고 노복·전담을 홀은 뒤 入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화출판사) 1961.

그러나 이 시험은 여유 있게 극복한다. ①의 병풍서를 모두 암송한다. ②의 유리방석을水上船처럼 조종한다. ③의 무쇠방 사벽에 주문을 붙이고 독경하자 열기가 냉기로 바뀌다. ④의 불에 달군 鐵馬를 대하자 西海龍王의 편지를 쥐고 香山에 배례하여 西山の 法術로 비를 내려 倭國을 삼시간에 수장하고 倭王의 降書를 받는다. 드디어 倭王은 무릎을 꿇고 매년 人皮三百枚와 擧丸 서말씩을 바치는 조건으로 진노를 멈춘다⁵⁾.

「甲辰錄」의 이 기록이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임란 후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주는 독립설화로 전승된 것은 꽤 오랜 것 같다. 그러다가 壬辰錄의 말미에 淸부되면서 對外感情의 대표적 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歷史的으로는 泗溟이 渡日한 甲辰年(1604)은 休靜의 沒年이 되므로 이미 西山大師가 세상을 떠난 뒤가 된다. 그러므로 休靜의 지시를 받거나 왜국 침몰의 도술적 근원을 休靜에서 찾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그러한 時間的 不一致는 兩師를 잇는 法術과 愛國意識 앞에선 충분히 극복되고도 남는 超時空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旬五志」에도 倭王을 항복받는 〈生佛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귀국길에 포로뿐 아니라 임란 때 빼앗아간 神通力의 佛畫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⁶⁾. 八公山 桐華寺에 소장되었던 이 佛畫는 寶物로 임란 때 왜인들이 도둑질해 갔는데, 〈有水旱疫疾 必祈此佛 神驗如響〉이라 하여 水災, 旱災, 疫疾에까지 큰 効驗을 나타내었다고 한다⁷⁾.

「甲辰錄」에서 生佛 시험을 겪는 과정은 아마도 就惠說話가 原型인 듯하다. 就惠의 文藁에는 사명당이 왜란 후 海印寺에서 숨어 지내다가 甲辰年 西山の 涅槃 소식을 듣고 奔喪하여 楊根 娛嬪驛에 이르렀을 때 王命을 받아 渡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生佛임을 시험당하는 대목에서

- ① 금은병풍 속의 倭詩文을 암송하다.
- ② 毒蛇 구렁이에 앉게 하다.
- ③ 火熱 속에서 鐵馬를 타게 하다.

등의 시련을 이겨내고 金輦을 타고 일본을 유람한 뒤 갖은 寶貨를 물리치고, 처음 和親하여 국가를 평안히 할 일을 말하고, 다음에 淸正의 머리를 요구하고, 다음으로 조선 포로의 刷還을 요구, 三千被虜들을 거느리고 돌아온다⁸⁾.

이 때문이 「壬辰錄」의 諸異本들 가운데서 변모된 樣相을 살펴 보자.

먼저 五難說話의 完型을 갖춘 것으로 黑龍錄을 비롯하여 鄙本B, 崇田大本 李能兩本B. C, 金起東本 등을 들 수 있다.

5) 「甲辰錄」(임진록부, 영화출판사) 1960. 참고

6) 洪萬宗, 「旬五志」卷下 惟政條 참고

7) 泗溟堂集 五臺山僧 就惠所藏文藁中 松雲事蹟 참고

8) 金煥泰, 「說話를 통해본 泗溟大師의 業蹟」(佛敎學報 8輯) 1971. 참고

- ① 일만 팔천 간 병풍서를 의우게 하다.
- ② 승당 못에서 유리(구리) 방석을 타게 하다.
- ③ 채단 방석과 白木 방석으로 生佛을 시험하다.
- ④ 무쇠 별당을 달구어 태워 죽이려 하다.
- ⑤ 무쇠 말을 달구어 타게 하다.

이러한 試鍊을 거쳐 生佛임이 확인되자 倭王이 降書를 바치고 드디어 屈服하게 된다. 延世大本 京板本 國圖本 李能雨本A, 鄙藏本A는

- ① 일만 팔천 간 병풍서를 의우게 하다.
- ② 승당 못의 유리 방석을 타게 하다.
- ③ 무쇠 별당에 넣어 태워 죽이려 하다.
- ④ 무쇠 말을 달구어 타게 하다.

라고 하여 <채단과 백목 방석을 주어 시험하는 장면>이 없다. 慶北大本은 <무쇠말을 달구어 타게 하는 장면>까지 없이 三難說話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작품의 경우 마지막 무쇠말을 달구어 타게 하는 대문에서, 泗溟堂이 朝鮮 香山(西山大師와 연결)을 向해 四拜하자 西山大師의 조화(손톱에 물을 묻혀 세번 뿌리자 큰비로 倭國이 水中에 沈沒함)로 倭國이 水中에 沈沒하여 兄弟之國 또는 父子之國의 降書를 올리고 倭王이 謝罪 매년 貢物獻納을 약속한다. 說寶和尚답게 倭國에 要求하는 첫 번째 寶物은 倭王의 머리다. 每年 人皮 三百枚(少女無孔) 擧丸 三斗(少年, 幼兒)를 要求하고 每年 三百名씩 東萊倭館에 番을 들게 하며, 國圖本엔 동철·목단·왜물 각 삼천근씩을 朝貢케 하고, 黑龍錄에는 구리쇠·주석쇠·통쇠·시우쇠 각 3만6천근씩이 첨가되기도 한다. 延世大本은 倭王이 주는 寶貨를 사양하고 被擄 三千을 거느리고 歸還할 제, 歸還 拒否者들을 한배에 싣고 海中에 水沒시키는 강렬한 民族意識을 고취하고 있는데, 이는 京板本이나 鄙本 A에서도 같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黑龍日記에는 泗溟堂이 海印과 대탈을 가지고 건너가 그 偉力으로 京都를 水中에 沈沒시켜 秀吉이 大驚하여 ① 鐵甕城을 쌓고 불로 태워죽이려 하고, ② 배 밑에 석돌을 달아 湖水에 태워 가라앉히려 하며, ③ 얼음상에 凍死시키려다 결국 뜻을 못 이룬 왜왕이 상기 降伏의 조건 외에 二陵(宣靖陵) 파굴의 책임을 물어 白金人形을 白金棺에 넣어 慶州(宣靖陵이 있는 곳)로 보내게 하고 海印과 대탈을 海印寺에 奉祠한다. 鄙本 A에서는 渡倭時 돌배(石船) 수백채를 무어 倭國에 進入하여 倭將 踰龍의 공격을 받고 범호(虎)자를 써 呪文을 외며 空中에 던지자(符籙) 수많은 범들이 一時에 出現하여 倭兵을 殺害하며, 泗溟堂에게 降伏한 倭王의 三寸 덕대가 泗溟堂을 再招請하여 陷穽 위의 槍劍에서 그를 걷게 하자 倭王의 눈을 빼고 덕대를 處斬한 후 倭國을 佛力으로 感化시키기도 한다. 崇田大本에는 人皮 三百枚를 每年 朝貢케 하자 倭臣 한자경의 제의로, 키 크고 壯力 있는 百姓 三百을 선발, 서로 싸워 죽이게 하여 그 皮를 벗겨 바치다가, 이 잔

인한 광경을 본 倭王이 자신의 목을 쳐 朝鮮에 바치라 하자 謀臣 벽도화 노산홍으로 하여금 조선에 나가 교섭케 하여 人皮 대신 東萊館 番 三百과 돛쇠 정철 등으로 降伏의 조건을 경감해주는 慈悲를 베풀기도 한다.

한편 泗溟堂이 중(僧)임을 漫忽히 여긴 東萊府使名은 송강(京板) 송경(李本 B. C. 鄙本A) 송상(延大本) 송이원(慶大本) 송상대(李本A) 송경선(金良善本) 서원덕(國圖本) 등으로 나타나며, 京板 延圖本 金起東本 등이 渡倭時엔 叱責에 그치나 金良善本, 崇田大本, 慶圖本, 鄙本B, 李本 B. C, 國圖本 등 대부분이 先斬後啓로 다스리고 梟首하는 강경한 態度를 보이고 있는 反面, 倭國의 降伏을 받고 歸還한 후에는 벼슬을 사양하고 入山하거나 臨終하는 佛家的 종결법을 택하고 있다. (金良善本, 李本B는 蓬萊山, 金起東本은 香山入山으로, 國圖本은 表忠寺, 李本C는 本寺로 돌아갔다고 하고, 黑龍日記에선 生佛이, 京板本에선 층계를 내리자 문득 간곳 없어졌다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就惠說話를 原型으로 한 「甲辰錄」의 기록은 「壬辰錄」에 오면서 對倭感情의 頂點을 장식하는 代表的 說話로 多樣的 變化의 振幅을 보여주고 있다⁹⁾.

㊤ 說寶和尚의 偉容

惟政이 清正의 머리를 요구한 기록은 就惠說話뿐 아니라 於于野譚에도 보인다. 그가 僧將으로 敵陣에 들어갔을 때 清正이 <그대 나라에 가장 귀한 보배가 무어냐>고 묻자 <우리 나라엔 달리 보배로 하는 것이 없고 보배로 삼는 것은 오직 장군의 머리>라고 하여 적장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芝峯類說에도 清正이 <너희 나라에 보배가 있으냐>고 묻자 <우리 나라엔 당신 머리로 보배를 삼으니 금 千金과 萬戶의 고을로 현상하고 있다>고 하여 뒷날 사신으로 일본에 갔을 때는 說寶和尚으로 불리워 졌다고 한다¹⁰⁾.

임란 때 楡岾寺를 점거한 왜병들이 佛僧들을 결박하고 金銀寶貨를 요구하자 泗溟堂이 나타나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물러가게 하고 왜장이 스스로 글을 써 <이 절에는 높은 道僧이 계시니 모든 군사는 절을 범하지 말라>고 붙여놓고 군사를 거두었다는 사실 역시 그를 높이는 逸話들이다¹¹⁾. 사명당의 지팡이에 얽힌 救援說話를 例示해 보자.

개신하고 돌아온 사명당은 이곳에 이르러 자기 지팡이를 길옆에 꽂고, 이 지팡이가 살면 내가 살아 있는 줄 알고 만약 조선이 위태로우면 이 세상에 다시 나와 나라를 구하겠다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되살아나 古木으로 자랐다. 해방직전에는 오랫동안 죽은 듯하던 고목의 동편 가

9) 「我國無所寶 所寶惟將軍之首」(泗溟堂集 柳夢寅 所著 於于野譚中 記松雲事蹟)

10) 「我國無他寶 唯以汝頭爲寶…我國購汝頭 金千斤 邑萬家 非寶何」(同李晬光所著 芝峯類說中 記松雲事蹟)

11) 權相老, 「泗溟堂一軍服으로 바꾼 袈裟」(韓國의 人間像 2) 新丘文化社 참고

이에 파란 잎이 돌아나 사명당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고 야단이었다¹²⁾.

이는 경북 상주지방에서 채록된 한 說話로 임란시의 사명당이 암울한 日帝時에 구원의 豫兆를 보여준 실예라고 하겠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의병승을 모아 倭에 對抗하고 적국에 건너가 담판을 벌이고 朝鮮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온 사명당에게, 민중들은 超人的 能力을 부여하고 道術을 부여하여 거어이 倭國을 降伏받고 굴복시키교야 마는 <民族的 英雄>으로 創造하기에 이른 것이다¹³⁾.

(2) 金應瑞·姜弘立의 征倭說話

㉠ 兩將의 人物像

먼저 작품 속에 나타난 金應瑞·姜弘立 兩將의 人物像부터 검토해 보자.

金應瑞(초명 景瑞)는 임란 때 평양 방위전에서 세운 戰功으로 平安道 防禦使가 되었으며 李如松이 이끈 明軍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하여 慶尙防禦使로 되고 적의 간첩 要時羅를 매수하여 정보를 입수하는 등 戰功이 컸다. 한편 작품 속의 金應瑞는 平安道 龍岡 땅의 한 미천한 장수로 범을 맨손으로 잡을 정도의 勇力을 가졌다. 父喪 중에 있어 출세의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이 원익(또는 이여송)에게 발탁되어 그의 副將이 된다. 첫 번째 그에게 부여된 임무는 왜장 종일(소섭 또는 조서비)을 살해하는 일이다. 그는 守廳妓 桂月春(또는 月川·花月)의 도움으로 倭將을 죽이는데 成功한다. 이 대목은 임진록에서 가장 긴장감과 스틸을 불러일으키는 곳이기도 하다.

姜弘立은 金應瑞와 같은 연대의 장수인데 원래 文官으로 출발하여 도원수 韓浚謙의 증사관으로 활약, 陳奏使 書狀官으로 明을 다녀와 晉寧君에 봉해졌다. 작품 속의 姜弘立은 濟州에 사는 無名의 邊方將으로 한 손으로 호랑이를 때려 눕혔다고 하여 大虎將軍이라 불리워졌다. 그는 전란이 일어나자 곧 濟州牧使를 찾아가 兵士 동원을 간청하여 함께 大海를 건너 적장 예한걸 동매 운충 등을 차례로 베고 전세를 승리로 이끄는 장군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兩將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볼 때 壬亂의 主役이었다기보다는 丁卯胡亂 당시의 主役들이라고 하겠다. 壬亂에서 수십년을 격한 胡亂 당시의 장수들이 시대를 거슬러 다시 壬亂의 主役이 되어 日本征伐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丁卯·丙子亂 당시의 굴욕적이고 억울한

12) 李慶善, 「三國誌演義의 比較文學的 研究」(一志社) p. 134 요약

13) 泗溟堂의 개별설화로는, 굶주림을 이기고 눈을 녹이며 비를 임의로 조절하기도 하며(朴榮濬, 「韓國의 傳說」 9卷 pp. 93~94. 3卷 pp. 220~223) 물고기를 산채로 먹었다가 토해내며 달걀을 쌓아 올리는 도술(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 pp. 415~418) 등이 전한다.

역사적 상황이 임진록을 창조한 민중들에 의해 왜국에 대한 반사적 보복행위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兩將이 日本征伐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역사적 이유를 추적해 보자. 明이 後金(淸)을 토벌하려고 군사들을 동원할 때 그들은 壬亂時 援兵을 보내준 舊恩을 들어 朝鮮에도 出兵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자 光海君은 晉寧君 姜弘立을 都元帥 平安兵使 金應瑞를 副元帥로 명하여 明을 돕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사르호(薩爾滸)에서 누루하치의 대군과 접전하여 패배하고 만다. 이때 조선군의 金應河·李繼宗 등은 끝까지 抗戰할 것을 주장하여 전사하게 되나 姜弘立·金應瑞는 敵陣에 통하여 조선의 출병이 부득이하였음을 표명하고 그 餘衆과 함께 後金에 투항해 버린다. 사실 姜弘立은 출전에 앞서 形勢를 보아 向背를 정하라는 光海君의 密旨를 받았다고 한다. 그후 姜弘立은 丁卯胡亂 때 韓濶과 더불어 胡軍의 先鋒으로 조선에 입국하게 되지만, 應瑞는 함께 被虜되어 있으면서도 몰래 日記를 써 敵情을 기록하여 본국에 송치하려다가 弘立에게 발각되어 處刑되었다고 한다¹⁴⁾. 역사적으로 보면 姜弘立이 도원수, 金應瑞가 부원수가 되었던 사실이 분명하나, 다만 兩將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는데, 姜弘立같은 變節이 당시 外勢의 미묘한 갈등으로부터 祖國을 우선 구할 수 있는 길이었을지는 모르나, 적어도 明을 위해 출전했으면 끝까지 殿節치 말고 그를 섬기며 도와야 한다는 당시 士大夫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민중의 심리에도 결코 好感을 주는 인물은 못되었다. 그러나 金應瑞의 경우는 비록 부원수라는 身分의 핸디캡으로 말미암아 일단 投降에 반기를 들 수는 없었으나 투항 후에도 끝까지 敵情을 탐지하여 본국에 알리는 등 初志를 일관한 節操를 보이고 있어, 민중들의 의분이 征倭時 그들의 位階를 뒤바꾸는 狀況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金應瑞의 부하에 金應河라는 용장이 있어 비록 上將은 투항했으나 끝까지 抗爭하다 大功을 세우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데, 작품 속의 金應瑞는 왜장의 목을 자른 金景瑞에다 이 金應河를 합친 성격의 人物로 보려는 견해는 인물의 성격 구성상 공감적 견해라 지적된다¹⁵⁾. 이로 미루어 볼 때 丁卯·丙子亂 후 胡國에 대한 敵對感 때문에 胡國에 투항한 변절의 姜弘立이 민중들에게 否定的으로 부각되는 반면 끝까지 節操를 지키려다 억울하게 피살된 金應瑞를 肯定的으로 보는 의식이 兩將으로 하여금 征倭의 모티브를 통해 그대로 反映된 것이라 하겠다.

㉠ 征倭와 民族意識

戰亂이 끝나고 國王이 還駕한 후 戰功이 컸던 兩將에게 朝廷에서 官爵을 厚히 내리자 兩將이 자원하여 壬亂의 원수를 갚기 위해 倭國征伐에 나설 것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姜弘立

14) 胡亂前의 對明清關係(震檀學會 韓國史 近世後期篇) pp. 84~85 참고

15) 李明善, 「壬辰錄 解說」(國際文化館) 1948. 참고

16) 李明善, 上揭書 p. 157. 林哲鎬, 「壬辰錄群研究」(延世大學院) 1977. pp. 78~83 참고

이 先鋒將이 되고 金應瑞가 後軍將이 되어 있는데 이는 光海君 때 派兵했던 事實과 一致한다(다만 黑龍日記만이 兩將의 지위가 바뀌어 있다). 出兵에 앞서 金應瑞는 海神 어득광(京板)의 만류를 받는다.

出兵을 三日間만 멈추라는 만류다. 왜냐하면 倭王이 征倭消息을 듣고 왜장 예팔도 예팔낙(京板)으로 하여금 동설령에다 三日間만 군사를 埋伏하였다가 撤兵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國圖本에는 海神을 <東海神靈>, 崇田本엔 <어득광>, 黑龍錄엔 <왜당강>, 李能雨本엔 <조선에 의지하는 귀신> 또는 <어다쌍>, 延世本엔 <득강>, 慶大本엔 <두강>, 鄙本엔 <증가>, 黑龍日記에는 억울하게 죽은 <광주 석저촌 金德齡의 영혼>으로 되어 있으며, 왜병의 매복처는 대개 <동선령> 또는 <동줄령>, <우무영>이며 왜장명도 <예팔도 예팔낙> <팔도 팔낙>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金應瑞의 요청이 선봉장인 姜弘立에겐 받아들여질 리가 만무하다. 무리한 感情的 出兵의 결과는 敗戰을 自招할 뿐이다.

「나는 조선의 의탁하여 머무는 어득광이라 호는 귀신이라 맞춤 장군의 운슈를 畵된즉 형군을 서서히 호여야 반다시 성공호리라 호고 간디업거늘 응세 괴히 여겨 군을 머무르고 鴻님을 청하여 귀신의 말을 전하고 군중의 무양함을 무르니 鴻님 왈 더스의는 적은 거슬 도라보지 아니호느니 엇지 범스흔 말노 더군을 머물미오 호고 북을 울너 鴻군을 지축호니 쯤 그 귀신이 응세의 진 뒤히셔 통곡 왈 장군이 니 말을 듣지 아니호면 화를 당호리라... 鴻님 대노 왈 나는 군중 主장이요 그대는 아장이라 엇지 니말을 듣지 아니리오 만일 다시 말호미 잇스면 군법 시형호리라」¹⁷⁾

위의 引用文에서 보면, 虛勢와 橫暴의 화신인 先鋒將과 신의 加護를 받는 後軍將의 성격 갈등이 묘한 對照를 보여주고 있다. 現實的 權威와 非現實的 神의 加護를 對立시킴으로써 신의 意志를 저버린 人間的 結果가 얼마나 可酷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앞서 든 <東海神靈> <金德齡의 魂>은 <金應瑞의 혼>으로도 바뀌어 예언과 啓示를 겸한 신으로 등장하는데, 자신의 忠義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무함을 받아 죽은 義兵將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이들은 모두 조선과 그 장수를 지키려는 守護神의 변형이다. 天命을 거역하고 出兵했던 朝鮮의 遠征軍은 결국 冬雪嶺에 埋伏된 倭兵들에 의해 전멸당하고 兩將은 倭將과의 最後の 劍術試合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金應瑞가 倭將을 殺害하고 결국 倭王에 의한 懷柔策에 說得당하게 된다. 倭王은 곧 兩將을 招請하여 酒宴을 排設하여 弘立에겐 公主를 應瑞에겐 王妹를 주어 강제결혼을 시켜 倭國에서 忠誠하여 榮華를 누리도록 宗용당한다. 崇田大本 延世大本 鄙本A의 경우는 姜弘立에게 王妹를 金應瑞에게 公主를 주는 것으로 바뀌고, 國圖本에는 倭王이 姘生 호윳과 주장으로 하여금 兩將 설득의 美人計를 쓰다가 두 公主 행희, 계획으로

17) 京板本 壬辰錄 권 3 p. 26

하여금 兩將을 섬기게도 하며, 밤에 宮女를 投入하여 회유하였으나 끝내 金應瑞가 이에不應하여 드디어 弘立의 목을 베고 自身도 자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黑龍日記에는 橫濱 浦口를 건너가 倭軍과 싸우다가 敗하자 왜왕의 설득과정 없이 後軍將 姜弘立이 先鋒 金應瑞의 목을 쳐 조선에 돌아오니 國王이 弘立을 禁府에 가두고 應瑞를 죽인 연유를 장문한 후 削奪官職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應瑞의 죽음은 平壤妓 桂月香을 죽인 報復으로 되어있음)

「슬프다 하늘이 무심하고 또 홍님이 님군을 비판하니 신주의 참아 못할 비라 너 너를 버려 후인을 증비하고 너 죽은 후의 혼이라도 성상의 나아가 봐오리라 하고 비슈를 써혀 홍님을 버리고 양철탄식하고 칼을 드러 죽기 머리를 버혀 더지니 응서의 타던 말이 응서의 머리를 물고 순식간의 창회를 건너 용강으로 가니라」¹⁸⁾

김 응서가 죽자 그의 愛馬가 主人의 목을 물고 바다를 건너가 龍岡 땅 그의 아내에게 갖다 바친다.¹⁹⁾ 한편 조선왕은 이 사실을 顯夢(關雲將)을 통해 알고 죽은 金應瑞를 위해 祭文을 지어 위로하고 夫人에게 貞烈夫人을 봉하며 전방 장졸을 위하여 大同米를 탕감케 하고 名刹 大寺의 法僧들로 하여금 水陸齋를 지내게 하는 한편 姜弘立의 背反은 三族을 멸하여 엄히 다스린다. 反面 朝鮮 장수들의 죽음을 전해 들은 倭王은 기쁨에 겨워 다시 朝鮮을 侵略할 준비에 광분한다.

결국 兩將의 倭國征伐은 앞서 든 泗溟堂의 降倭說話와 함께 壬亂으로 위축된 民族感情과 民衆意識을 일깨워 주는 代表的 覺醒劑 說話로 기술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는 國王의 顯夢을 통해 再現된 金應瑞가 死後에까지도 忠誠을 맹세하며 倭侵을 막아 주겠다고 하는 盟誓文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²⁰⁾

그러나 이 모티브는 비록 虛構的 사실이지만 설불리 感情的 出兵으로 敗北당하고 倭王의 懷柔를 받는 忠臣과 逆臣의 對照의 묘사를 통하여, 國難期の 民衆들이 무엇을 어떻게 意識하고 있는가를 反射的으로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3) 李如松의 援兵說話

㉠ 如松의 트집

「임진록」에는 日本에 대한 敵愾心 못지 않게 請兵過程을 통하여 事大宗主國이던 明에 대한

18) 京板本「壬辰錄」 권 3, p. 34

19) 이 話素는 壬亂時 甫靑 朴將軍이 싸움터에서 戰死하자 愛馬가 主人의 목을 물고 돌아왔다는 傳說이 있는 것으로 보아 一般化된 說話 패턴의 援用이다. 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通文館) p. 460 참고

20) 崇田大本「壬辰錄」 권 3 p. 66 참고

屈辱的 감정이 否定的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시까지 執權層에 의해 섬겨졌던 지극한 事大의 감정이 朝鮮의 請兵過程을 통하여 批判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은 곧 「임진록」이 民衆의 文學임을 입증한다. 明은 처음부터 自國領內가 전장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史儒 戴朝辯 등으로 하여금 국경을 경비토록 하였는데, 이 무렵 朝鮮에선 援兵 要請이 구체화된다. 이때 明은 寧夏에서 唃拜의 반란이 일어나 李如松으로 하여금 出兵케 하고 있던 터이라 援兵을 보낼 형편이 못되었으나 兵部尙書 石星의 강경한 주장으로 遼東副總兵 祖承訓으로 하여금 출병케 한다. 임진록에는 石星의 출병 주장의 이면에서 唐陵君 洪純彥과 石星의 처 俞氏夫人의 관계가 설화되고 있다. 역관 洪純彥이 북경에 갔을 때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靑樓에 몸을 팔고 있던 俞氏를 구해 준 일이 있는데 그녀가 나중에 石星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개인적 친분이 鄭昆壽로 하여금 石星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²¹⁾ 그러나 祖承訓의 평양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자 沈惟敬을 내세워 和戰兩方으로 태세를 갖추고 있던 明은 곧 寧夏의 난을 평정하고 돌아온 李如松으로 하여금 二次 援兵을 하기에 이르는데 이 때 宣祖는 직접 鴨綠江까지 親迎에 나선다.

李如松이 朝鮮系라고 설화되는 이면에는 援兵將으로서의 기대가 지나치게 컸던 당시인들의 所望과 意識이 있다.

「金漢英은 義州衛兵이라, 洪天民이 都司 迎慰使가 되었을 때 작은 兒孩로서 보았더니, 및 그 아들 瑞鳳이 영위사되어 의주에 이르니 漢英이 瑞鳳더러 가로되 <옛 先令公이 영위사되었을 때 李成樑이 黔山參將으로 都司를 대신하여 天使 許國을 모시고 압록강에 이르렀더니 때에 成樑이 아들과 다못 조카다 摠髻小兒라. 압록강을 건너 義州로 와보고 가니 그가 곧 如松이라. 나이 十三에 용모가 秀美하더이다.> 壬亂에 如松이 제독으로 十萬兵을 거느리고 平壤敵을 파하고 우리 先王께 謁어 가로되 <僕이 여러 일적 貴地에 놀았노라> 하되 國人이 믿지 아니하였더니 및 漢英의 말을 들으니 果然이더라」²²⁾

여기서 보면 如松의 父는 成樑이며 일찍부터 압록강을 내왕하였다고 하였다. 壬亂에 來援한 明軍들이 돌아갈 때 그들에 증속되었던 朝鮮인을 支那內陸으로 끌고 돌아간 숫자도 적지 않으나, 山海關 이동 南滿州에는 이미 왜란 이전부터 朝鮮流民들이 많이 入居하여 살았는데 倭亂前後에 滿州에서 살던 鐵嶺李氏도 그 하나며 李如松도 역시 朝鮮系라 하는 바, 於野譚의 前記說話는 그 좋은 뒷받침이 된다고 하겠다.²³⁾ 漢文本에는 白沙와 漢陰이 中原에 원병을 요청하다가 七年兵禍가 朝鮮의 運이라 하여 거절 당하고, 白沙가 다시 請兵 使命을 띠고 中原을 향하던 중 平陵 無人之境에서 날이 저물어 한 老嫗의 집에서 李如松의 畫像을 얻어가 援兵將을 如松으로 交替해 달라고 간청하여 모셔오는 과정이 서술되고 있는데, 이 역시 朝鮮

21) 世昌書館本 「壬辰錄」 pp. 41~46 참고

22) 柳夢寅, 「於野譚」(韓國古典文學大系 13) 民衆書館 p. 113 역문

23) 倭亂과 對外關係(震檀學會 前揭書 近世前期篇) p. 675 참고

系の 續연을 붙여 危急에서 구해주기를 바라는 所望意識에서이다.²⁴⁾

異本間 援兵說話 모티브의 比較

異 本	請 兵 使	一 次 援 兵	二 次 援 兵	請 兵 說 話	如 松 追 放 說 話
國 漢 本	李德馨, 李恒福	祖承訓, 史儒	李 如 松	皇夢(頭戴禾束)	·
崇 田 大 本	신점, 정탁, 李德馨	祖承訓	〃	皇夢(關雲長)	·
京 板 本	신점, 이성낙, 李德馨	祖承訓, 史儒	〃	〃	·
黑 龍 日 記	李 德 馨	〃	〃	〃	·
延 世 圖 本	宣 祖	(拒 絶)	〃	〃	·
鄙 藏 本 A	宣 祖	(拒 絶)	〃	〃	있 음
鄙 本 B	李 德 馨	祖承訓, 史儒	李 如 松	皇 夢(계집명)	·
權 寧 徹 本	李恒福, 金誠一	(拒 絶) (김 일 성)	〃	畫 像(江 陵)	있 음
李 漢 本	李恒福, 李德馨	(拒 絶) (以 成 장 군)	〃	畫 像(平 陵)	있 음
高 漢 本	李恒福, 李德馨	(拒 絶) (金 以 成)	〃	畫 像(平 陵)	있 음
慶 北 大 本	李恒福, 金誠一	(拒 絶)	〃	畫 像(平 陵)	·
國 立 圖 本	柳 成 龍	〃	〃	皇 夢(關 羽)	있 음
黑 龍 錄	〃	〃	〃	〃	山 穴 자 름
李 能 雨 本 B	〃	〃	〃	〃	·
金 良 善 本	〃	〃	〃	〃	山 穴 자 름
李 能 雨 本 A	柳 西 厓	〃	〃	〃	·
〃 C	李 恒 福	심유경지시	〃	〃	·
鮮 壬 錄	윤 태 경	(拒 絶)	〃	〃	·
金 完 燮 本	柳 成 龍	〃	〃	〃	·
金 起 東 本	柳 成 龍	〃	〃	·	있음(강조)
世 昌 活 本	(홍순언)鄭昆壽	祖承訓, 史儒	〃	(翁夫人·石星)	·

※ 〃 표시는 위와 같음을 표시함.

위의 圖表에 의하면 請兵使는 대개 李恒福·李德馨 또는 柳成龍·金誠一로 되어 있다. 다만 崇田大本엔 李德馨 이전에 신점·정탁이 京板本에선 신점·이성낙이 파견되며, 鮮壬錄엔 윤태경이, 世昌本엔 鄭昆壽·洪純彦이 파견된다. 그러나 이들의 一次 援兵은 대부분의 경우 農節이란 핑계로 拒絶당하고 虛還한다(역사본의 경우는 祖承訓·史儒 등이 來援한다). 가령 慶北大本의 경우는 <朝鮮八年兵禍莫非天壽>라 하고 延世本의 경우는 凶年을 핑계로 하고

24) 高大本「壬辰錄兼兎事」p. 7. 참고

戶部侍郎 한 경노가 天文을 보고 朝鮮 英雄의 能力을 過信, 獨自的 방어력을 認定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일령(일경)은 援軍이 스스로 올 것임을 豫言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中原 天子는 關雲長의 顯夢을 얻는다.

「쇼장은 옛날 삼국시절 혼나라 쇼렬황제 섬기든 관운장이압고 명은 우은티 유황숙과 쇼장과 장비와 도원결의 삼형제가 되엿습더니 쇼렬황제게압서는 다시 환성호와 폐호가 되시압고 아우 장비는 환성호야 조선왕이 되온 바 쇼장은 잇디것 환성치 못호여, 인간에서 말호기를 관왕이라 호압고 쏘호 경녕이 아직 쇠호지 안스와 아오의 나라 왜난을 혼번 도와 주엿스오나 힘이 능치 못호으며 쏘호 폐호께서도 아오에 나라를 구원호여 주시면 쇼장에 죽은 혼이라도 웃지 것겉지 아니호으릿가」²⁵⁾

위의 引文은 三國誌 桃園結義를 원용하여, 劉備(昭烈皇帝)는 中原天子되고 張飛는 朝鮮王이 되고 關羽는 還生치 못호였으나 정령이 아직 쇠호지 않아 朝鮮의 患難을 도우고 있으니 上兄도 受難을 겪고 있는 아우의 나라를 救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桃園結義를 말한 顯夢은 거의 모든 異本에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李如松으로 하여금 援兵將을 삼으라는 당부까지 잇지 않고 있다. 그러나 關雲長의 顯夢이 아닌, 계집이 벗단을 이고 朝鮮에서 와 皇帝의 침상을 밀치는 꿈을 꾸기도 한다. 이 설화는 대부분의 경우 壬亂을 예고하는 宣祖의 夢事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倭軍의 中原 侵略을 우려하여 결국 出兵을 서두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京板本 鄙本 B가 그 代表的 예다. 國漢本은 〈無數女人 頭戴禾束 自朝鮮來斥去〉²⁶⁾라 표현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二次 請兵使가 中原에 도착한다. 위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때 援兵將이 李如松이 되고 있음은 모든 異本들이 共通的이다. 다만 說話 漢文本系列의 작품들에서는 李如松의 畫像求得 모티브가 共通的이라는 점이다. 李漢本·高漢本은 李恒福이 再請兵 길에 江陵 子午谷을 지나다가 老嫗가 간직한 如松의 畫像을 얻어가 李德馨이 泣血七日에 얻어낸 援兵將 金以成과 交替하는데 성공한다. 權寧徹本과 慶北大本은 다만 李德馨이 金誠一로만 변모되어 있다.

「그 장수는 턱을선관으로 상제기 득죄호고 인간의 너치미 그 장수 전장의 나서면 일본이 능히 당치 못호리다 그러므로 그 성명은 천리를 누설치 못호노라 밧비 가서 그 장수를 청호라 호시고 화상을 살너주거늘 가지고 노리를 이별호시 노리 문득 간디 업거늘 항복이 공중을 향중여 스레호고」²⁷⁾

이는 짚은 神仙思想이 엿보이는 바 李如松이 玉皇上帝께 得罪하고 人間에 내친 바된 太乙 仙官이라 하고, 畫像을 주던 老嫗 역시 조선 구원을 위하여 마련된 幻想的 天上人이다.

李如松이 國境을 넘으면서 갖가지 트집을 잡는 소설적 논리는 請兵使(李恒福) 때문에 정

25) 「黑龍日記」(金根洙 小說資料集成) pp. 66~67.

26) 國立圖書館本 「漢文壬辰錄」 p. 43.

27) 慶北大學校本 「壬辰錄」 p. 14 인문

발되어 北伐의 功을 세우지 못하는 분풀이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선지는 귀국 스람이라 옛날 안평도(평안도) 니산서 스다가 지금 덕국으로 드러와 잇습기로 나의 부친이 또한 엄중하신 훈계가 잇스오니 웃지 귀국에 닐를 범홀이 호오릿가」²⁸⁾

라 하여 의면상으로는 如松이 朝鮮人임을 말하면서 表裏不同함을 드러내고 있다.

朝鮮에 入國하면서 接伴使에 나타난 李如松의 트집은 대개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 ① 龍肝(용국)이 먹고 싶다.
- ② 상어箸를 대령하라.
- ③ 하룻밤에 천독 술을 마련하라.
- ④ 白馬 천필을 마련하라.

①의 응답으로는 三冬의 鴨綠江에서 龍을 낚아 올린다거나 接伴使가 白馬江에 나가 三日致祭 또는 蒼天號哭으로 龍肝을 얻는데 成功하며, ②의 경우도 接伴使의 웃소매에 미리 마련된 상어저를 갖다 바친다. ③ ④ 역시 접반사의 機智와 道術이 如松의 트집을 막기에 족하다. 說話漢文本들은 대개 ① 모티브가 공통적이며, 國圖本이 ① ②를, 金良善本이 ③ ④(김응서 접반)를 갖고 있으며, 그밖에 稿軍을 핑계 삼자 軍糧과 食事を 대령하고 戰勢를 묻자 정충신이 재빨리 朝鮮地圖를 갖다 바치며, 京板·崇田本 등에서 조선왕과 李如松 사이에 계층과 생낙지의 응수를 통한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 등은 援軍의 우월감 속에서 저질러진 明軍의 橫暴가 민중 속에서 꾸며져 나온 否定的 插話들이다.

두 번째 트집은 朝鮮왕의 王相을 핑계로 如松이 回軍하려는 대문이다. 朝鮮王이 王相이 아니며 七年大亂은 天運이라는 운명론이다. 더욱 恥辱的인 것은 解夢의 연유로 내쳤던 최일령의 指示를 國王이 받거나 李恒福·李德馨 등 臣下들의 권유로 回軍을 만류하기 위해 국왕이 통곡하는 일이다. 李漢本·高漢本 등에선 王相이 〈人間不用之相〉이라 하여 三角山에 올라 呼天大哭을 하며, 黑龍日記 黑龍錄에선 七星壇을 쌓고 그위에 독(甕)을 놓고 그 속에 들어가 痛哭을 한다. 金完燮本은 三日呼哭을 한다고 하였다. 국왕을 국가의 상징이라 볼 때, 王相이 아니라고 回軍하려 하고, 더우기 回軍을 만류하기 위해 王이 臣下들의 지시로 통곡을 일삼는 사실은 王權을 否定하는 侮蔑과 恥辱을 뜻한다. 王相을 핑계 삼던 如松도 독 속의 王哭을 듣고는 回軍을 멈춘다. 이 대문은 매우 示唆的인 바가 있다. 王相과 哭聲의 합수는 李如松으로 상징된 大明의 朝鮮觀이요 王權과 밀착된 對明觀의 지극히 冷笑的 表現法이다.

㊦ 追放되는 李如松

앞서 보인 도표에 의하면 李如松의 追放 모티브를 가진 작품은 權寧徹本 李漢本 高漢本과

28) 「黑龍日記」(前掲書) p. 79.

國圖本 鄙本A, 金起東本の 여섯 작품이나 되며, 黑龍錄 金良善本은 山穴을 마구 찌르는 如松의 심술이 익히 묘사되어 있다. 權寧徹本은 李如松이 歸國한 후 金德齡 李舜臣 같은 名將들이 다시 나 明나라를 쳐올까 두려워 하여 名山地穴을 끊어 버리기 위해 再次 朝鮮을 찾아온다. 그는 마지막 山穴을 자르려고 俗離山에 入山했다가 山神靈에 의해 被殺되는데, 이를 분하게 여긴 아우 李如白이 兄의 원수를 갚으려고 다시 朝鮮을 征伐한다. 李漢本 高漢本은 七年兵禍보다 6달에 입은 如松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고 하고, 如松이 조선왕의 王位를 빼앗아 朝鮮에 머물러 하다가 靑驪少年의 인도로 太白山에 들어가 그 소년의 孫子의 劔術에도 감당을 못하여 끝내는 굴복하여 訓戒를 받고 쫓겨 歸國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國圖本에는 亞將 한태익으로 하여금 남은 군사를 몰아 故國에 돌아가게 한 후 如松 자신은 팔도를 두루 돌며 山穴을 자르다가 黑牛탄 老翁을 따라 太白山에 들어가 老翁의 八子 중 末子의 不孝를 叱責다가 寶劔까지 빼앗기고 허둥지둥 환국한다. 金起東本은 이 때문이 가장 절정을 이룬다. 八道の 山穴을 자르던 如松이 이를 妨害하는 老翁을 좇아 深山茅屋에서 對座한다. 八兄弟의 자식 중 七子는 西蜀에 採藥 가고 末子의 不孝를 責하려던 如松은 오히려 쫓겨나 김매던 女人의 유혹을 받아 그 집을 찾아간다. 그 女人은 崑崙山 天皇菩薩의 양딸 증아황, 남편 역시 中國人으로 연분을 따라 조선 산신령이 되었으며, 남편은 조선에 항복하라고 倭王을 설득 나간 지 여러 해가 되었다는 것이다. 如松을 유인함은 조선 산천의 혈맥을 찌르기에 천살급살에 육시살급하여 죽이라는 天皇의 분부 있어 誘引하였으나 故國人物(同鄉)이라 特赦하니 빨리 귀국하라는 명을 받는다. 如松이 그 곳을 달려나와 뒤돌아보니 <늙은 소나무 밑 돌무더기> 뿐이라 하여 에니미즘 신앙을 바탕한 山神의 震怒를 확인하고 歸國 길에 오른다. 鄙本A에서는 深山에서 만난 老翁을 경원처사라 하고, 그 아들과의 재주시합에서 敗하고 달아나다 범과 神將을 만나 叱責을 당한 후 똥을 뺑뺑 꾸며 大國을 다 가도록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당시 支配層의 마지 못한 崇明事大의 이면에 도사린 民衆의 抵抗과 忿怒를 상징한 構成法으로 종래의 「壬辰錄」 평가에서 事大主義思想만의 表出이란 안일한 표현은 否定되어야 할 것이다.²⁹⁾ 이러한 說話는 李義準의 「溪西野譚」에도 보이는 바, 壬亂時 李如松이 平壤을 回復하고는 練光亭에서 大宴을 배설하고 嫩麗한 朝鮮山川을 탐내다가 검은 소를 탄 老翁에게 쫓겨 深山으로 인도되었다가 일장 훈시를 받고 명나라로 쫓겨 달아난다고 하였다.³⁰⁾

㉔ 역사적 根據

29) 拙稿, 「壬辰錄群의 形成과 民衆意識의 변모」(국어국문학 61), 1973. 및 「壬辰錄漢文本論攷」(檀大國文學論集 5.6 집) 1972. 참조

30) 隱君子說話(崔南善全集 卷5) p.190 참조

明軍의 來援은 사실상 祖承訓의 평양공격 실패 후 경략 宋應昌 제독 李如松의 군, 경략 楊鎬 총독 邢玠 제독 麻貴의 군, 丁酉再亂의 四路軍 등 전후 20여만에 이른다. 그러나 명의 起兵은 처음부터 조선의 禍가 自國에 미칠 것을 염려한 데서 비롯된 행동이므로 朝鮮軍과의 合同作戰에서 誠意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援兵으로서의 使命感보다는 눈치껏 체면을 세우고 倭兵을 달래보려는 一面戰爭 一面講和의 양면작전을 폈다. 「瑣尾錄」에 의하면 碧蹄 패전 이후 명의 講和 交渉으로 禁殺牌文(擊倭禁止)을 내려 官軍과 義兵軍의 손을 묶어 놓고 그들의 이해를 위하여 조선군의 전투를 일부터 방해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碧蹄 싸움에서 우리 순변사 李養이 회군을 반대하자 명장 張世爵이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權慄이 임의로 적을 공격하였다 하여 劉綎의 決杖을 받는다든지 陳璘이 전공을 탐내어 李舜臣이 참획한 首級을 탈취해 간다든지 李鎰의 군이 如松에게 함부로 구타당하는 행위 등은 대표적 사례가 된다.³¹⁾

한편 明兵들이 주둔한 수복지구에서의 횡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는 곳마다 주민들이 구타당하고 財物을 탈취하고 부너자는 劫姦당한다. 실록을 보면 糧餉을 분배하던 관리가 亂杖을 당하고 양향을 탈취당한다.³²⁾ 민간에 대한 명군의 피해는 막심하였다. 李如松의 평양 전역에 대한 기록 가운데는 여승이 평양 공격시 벤 首級의 절반이 조선 백성이라 하니 이 사실을 조선에서 변해해 달라는 기록이 있다. 결국 이 문제로 如松은 還軍하기에 이른다.³³⁾ 明軍으로 말미암은 피해도 倭兵의 잔학과 횡포 못지 않게 컸으므로 백성들은 명군의 주둔을 꺼려하였다. 「燃藜室記述」에는, 家畜들(牛馬鷄犬)이 모조리 明兵에게 넘겨져 그들은 배불리 먹고 과식한 나머지 토해낼 정도인데도 그 옆에서 朝鮮人은 굶주려 죽어가야만 하는 目不忍見의 참상을 기술하고 있다.³⁴⁾

이처럼 원병국에 대한 批判的 의식은 집권층의 崇明意識에 반해 민중들에게 전란 중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敵對的 感情으로 變容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의식은 援兵過程과 李如松의 행위를 통해 구체화되고, 그를 살해하거나 추방하는 구성법을 통해 정점을 이룬다. 明의 援軍을 第二의 敵으로 몰아붙인 의식의 내면에는 그들의 횡포를 목격해온 민중의 분노와 원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 關雲長의 陰助說話

㉠ 關羽 奉祠

31) 柳成龍, 「懲愆錄」 卷3 碧蹄戰條, 「瑣尾錄」 卷3 甲午 五月條 참고

32) 「宣祖實錄」 87 宣祖 30年 丁酉 4月 壬午條

33) 「宣祖實錄」 34 宣祖 26年 癸巳正月 乙丑條

34) 李肯翹, 「燃藜室記述」 卷17 宣祖朝 亂中時事摠錄條

關羽는 中原의 장수이면서 朝鮮의 守護神이 되어 있다. 전란 중 조선이 危境을 당할 때마다 나타나 陰助와 救援의 신으로 활약하고 있다.

關雲長의 關은 姓이요 名은 羽, 字는 雲長으로 後漢 桓帝 延熙 9년 河東 解州(山西省)에서 났다. 三國志演義에는 그의 용모를 <身長이 9척 鬚髯이 2척 얼굴은 대추를 포개는 것 같고 입술은 연지를 바른듯 丹鳳眼에 누에 눈썹>이라고 하였다.³⁵⁾ 劉備가 平原相으로 있을 때 關羽는 張飛와 함께 別部司馬가 되었다. 劉備가 曹操에게 패해 袁紹에게 달아날 때 關羽는 붙잡혔으나 조조는 그를 오히려 환대한다. 그 때 관우는 顏良을 버혀 조조에 보답하고는 다시 糜竺에게 돌아가 위세를 떨치다가 孫權이 呂蒙으로 하여금 관우를 치니 그는 드디어 敗死하고 만다. 沒年은 後漢 獻帝 建安 24년(AD 219)으로 알려져 있다.³⁶⁾

關羽가 중국에서 처음 奉祀된 곳은 佛寺에서였다. 儀鳳 元年(676) 王泉寺에서부터인데, 이처럼 관우 신앙이 불교와 융합하게 된 것은 그의 武勇과 忠義 때문이었다. 武廟에 처음 모셔진 것은 그로부터 약 1세기 후 太公望(呂尙)을 主神으로 모시면서였고, 宋代에 내려 와서는 金의 침입으로 社會가 차츰 혼란해져 關羽의 陰助를 바라 崇寧眞君으로 봉해졌다. 그의 고향 河東에서는 道教의 신으로도 대단한 숭배를 받았으며 明清代에는 關聖帝라 하여 大祠廟에 釋迦·觀音·關帝를 竝尊할 정도였다.³⁷⁾ 이처럼 關羽 信仰이 중국인에게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된 까닭은 그의 義勇忠節을 높이 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 國難과 災殃이 잇달리는 불안한 사회에 살던 민중들이 현실 극복의 의지를 결속하기 위해 부각시킨 산 信仰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신앙이 儒佛道思想에 혼용된 민간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 關羽 信仰의 轉移

朝鮮에서 關王이 숭배되기 시작한 것은 壬辰亂 때 明軍에 의해서부터였다. 임란 때 조선에 나와 있던 明軍에 의해 道教系의 우리 民間信仰에 關王崇拜 思想이 전래되면서 난후 바로 南大門, 東大門 밖에 關王廟를 설립하게 되었고 지방에서는 陳璘이 康津에 藍芳威가 南原에 茅國器가 星州에 薛虎臣이 安東에 각각 關王廟를 세워 봉사하기에 이르렀다.

「小西行長과 加藤清正이 서울을 함락하기 前夜의 일이다. 城을 지키던 한 장수의 꿈에 關雲長의 영이 나타나, 내일 내가 왜병과 싸울텐데 清正이 타고 있는 말이 무서우니 그 말을 죽여 달라고 하였다. 다음날 왜병이 대거 성을 공격할 제 南廟 있는 곳에서 關帝가 나타나 赤兔馬에 靑龍刀를 휘둘러 왜병을 몰 베듯 하다가 지금의 東廟까지 나아갔으나 조선 장졸에겐 清正의 말을 죽일 재간 없었다. 그런

35) 羅貫中, 繡像全圖 三國演義 卷1 一回

36) 「三國志」卷36 蜀書 關羽條

37) 李慶善, 「三國志演義의 比較文學的 考察」(一志社) pp. 219~220 참고

네 關帝의 陰佑를 알아차린 清正이 제말의 목을 쳐 그 피를 關帝에게 뿌리자 關公의 현령은 갑자기 사라지고 倭兵이 도성을 점령하였다.³⁸⁾

앞의 引文은 東南廟의 緣起傳說로, 倭亂이 平定되자 宣祖는 關帝의 陰助를 듣고 關公이 나타나 사라진 곳에 각각 南廟와 東廟를 지어 제사하였다고 한다. 한편 평양의 西廟나 동래의 關王廟緣起에는 呂姓 가진 사람의 宗拜를 통해 三國志에서 關羽와 呂蒙의 관계를 관련시키고 있어, 바로 이러한 傳承的 바탕이 임진록 가운데서 戰勢를 좌우하는 關雲長의 靈驗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⁹⁾ 關羽信仰은 그의 魂靈이 출현하여 적을 멀하게 된다고 믿어 왔으며, 바로 임란이라는 難局 중에 왜군을 격퇴한 조선의 승리는 모두 關羽魂의 소치라 믿는 완전히 조선의 救援神으로 信奉되는 계기를 이룩하고 있다.⁴⁰⁾ 西厓 柳成龍은 임란에 앞서 宣祖 5년 聖節使의 書狀官으로 赴燕한 기록 가운데서 燕都의 가는 곳마다 關公의 畫像을 모시고 香火祭祀 祈禱하는 광경을 <餘怪之間於人>이라 기록하였으나, 그의 <懲忿錄>에는 陳寅이 세운 南廟에서 關王의 生日인 5月 13日 大祭 중의 靈驗을 기록하면서 <此亦理之 難測者也 豈偶然耶>라 하여 救援에 대한 강한 心理作用을 엿보게 해준다.⁴¹⁾

㊦ 關雲長의 陰助

「임진록」에는 三國志演義에서 보는 劉備 關羽 張飛의 桃園結義가 그대로 옮겨져 있다.

李如松條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劉玄德(備)은 中原天子가 되고 張飛는 朝鮮王(宣祖)이 되고 關羽는 還生치 못하고 朝鮮王에 의탁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構成法이다. 劉備와 張飛는 明王과 朝鮮王의 관계를 통해 <玄德爲兄... 張備爲弟>의 血盟關係를 맺어 아우를 도와야 할 兄의 責任感과 當然性을 말하고 있으며, 關羽는 生還치 못하고 張飛(조선왕)에게 依托한 사실을 통하여, 항시 兄弟之誼를 깨우쳐 주고 朝鮮을 도와줄 責任과 任務가 있음을 力說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우는 直接的 現實의 行動을 피하고 顯夢을 통해 危機와 難局의 解決方法을 알려주며 때로는 敵陣 깊숙히 나타나 敵將을 叱責 退陣시키고 殺害하기도 한다.

「문득 티폰이 이러 거문 구름과 안기 자욱하며 공중으로 고각함성 천지 진동하며 적병을 무슈히 살육 하니 적병이 바람을 조츠 훑터지니라 청정이 고이 너겨 공중을 바라보니 일원신장이 적토마를 타고 순금투고 빅전표 삼각슈 봉의는 우슈는 청용도 좌수의 거늘 드러시니 거의 하얏스되 숨국시훈슈정 관운장이라 하얏거날 청정이 되집하야 말의 너려 비리하고 군수를 거너려 도망하니라」⁴²⁾

清正陣에 나타난 關雲長을 보인 이 引文은 國漢本の <乘赤兔馬亘三角鬚執青龍偃月刀張目

38) 孫晉泰, 「朝鮮民譚集」(郷土研究社) pp. 61~62 요약

39) 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 pp. 378~379 참고

40) 朝鮮前期의 文化(前揭 韓國史 朝鮮後期篇) pp. 732~733

41) 柳成龍, 「西厓文集」卷16 雜著 關廟記 참고

42) 延世大本 「壬辰錄」 p. 34 인문

大叱⁴³⁾이라 한 표현이나, 京板을 비롯한 諸異本の 표현들도 하나같이 三國誌演義式 文章法의 영향을 짙게 받고 있다. 그런데 이 關雲長 陰助 모티브를 그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類型化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朝鮮王에 현몽하여 倭侵을 예고한다.
- ② 明皇에 현몽하여 援兵을 說得한다.
- ③ 我軍의 守護神으로 名將들의 신변을 지켜준다.
- ④ 敵陣에 출현하여 敵兵을 격퇴 살해한다.

異本間 關雲長 話素 對比表

異 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國 漢 本				○○			
崇 田 大 本		○	○	○			○
京 板 本		○	○	○			
黑 龍 日 記		○		○		○	
延 世 圖 本		○	○	○			○
鄙 藏 A 本		○	○	○			
鄙 本 C							
權 寧 徹 本	○○		○		○○		○
李 漢 本	○				○	○	
高 漢 本	○				○	○	
慶 北 大 本		○					
國 立 圖 本	○	○		○●			
黑 龍 錄		○		○●			
李 能 雨 本 B		○		○●			
金 良 善 本		○		○●			
李 能 雨 本 A		○		○●			
” C		○		●			
鮮 壬 錄		○	○○	○			
金 完 燮 本		○		○●	○		
金 起 東 本							
世 昌 本							

43) 國立 漢文本 「壬辰錄」 26張 引文

- ⑤ 國王의 蒙塵과 還宮을 지시 보호한다.
- ⑥ 조선장수를 추천하고 도와준다.
- ⑦ 關雲長이 守護神으로 奉祠된다.

위의 도표에 의하면 關雲長 모티브의 頻도가 가장 높은 話素로는 ②③④를 들 수 있으며, 說話漢文本 계열의 작품에서 ①⑤⑥의 話素가 공통적인 점을 들 수 있다. ②의 경우, 請兵使들이 虛還하자 援兵이 스스로 올 것이라고 豫言한 최일령의 말과, 關雲長의 顯夢으로 明皇이 援兵을 보내게 되는 事實의 一致는 내면상으로 자국이 戰場化하는 것을 우려하여 그 保護策으로 派兵을 한 것이지 결코 조선의 請兵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여서가 아니라는 民衆의 意識을 나타내며, ④의 話素가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있음은 現實의 敗北를 否定하고 오히려 이를 勝利感으로 置換하려는 民衆의 所望의 表現이라고 하겠다. 李如松이 朝鮮 땅을 밟으면서 王相을 핑계삼고 불가능한 條件들을 제시하여 回軍하려는 사실도 기실 一次援兵의 거절과 연결되는 眞心의 나타남이며, 如松이 關雲長의 指名을 받고 朝鮮援兵 때문에 자신의 功을 세우지 못하여 불평하는 內心 역시 回軍時의 트집과 相關性을 갖고 있는 바, 이같은 關雲長의 積極介入이 明과 조선의 감정적 觸媒役割을 하고 있음은 注目할 만하다. 如松이나 應瑞(또는 德齡)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倭將 清正를 殺害할 수가 없다. 關雲長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介入함으로써 清正이 殺害되고 戰爭이 終息된다. 黑龍日記에는 關雲長이 조선의 병들의 활동도 크게 도와주고 있다.

「난더 엮든 발암소리가 요란하며 공중으로서 일장 벽녀소리 나며 짓치는 형상이 매우 요란하더니 주세이 들으리 십근 청농도를 밧으라 허난소리 강산이 진동이라 군중이 디경하야 웃지할 줄 모르더니 이윽고 월석이 명낭하리 진문을 나와 동정을 살펴보니 왜적의 진쳤든 자리에 군졸이 무슈이 죽어있고 왜진은 십니밧게 퇴진한지라 이거시 웃지 관공의 혼녕이 도아주심이 아니리오. 이럼으로 속담의 이르기 를 관공께서 조선에 급한 난리의 세번 도와주신다 허더니 과연 허도다」⁴⁴⁾

이 도움은 김천일 양산도 정인홍 김면 김응서 홍계남 이원익 고경명 고언백 등 의병들의 항전에 고루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도 國圖本에는 최위공의 夫人께 현몽하여 최일령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倭將 蘇攝을 죽인 金應瑞에게 나타나 月仙을 죽여 화를 면하라 예언도 하며, 李如松에게 현몽하여 海戰에 李舜臣을 발탁하여 주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話素 ①의 경우는 대개 宣祖의 꿈에 關雲長이 출현하여 전란을 예언하며, 竹籠을 싣고 들어오는 諜僧 叔主(舟)를 잡아 미연에 防止할 것을 指示한다. 國王이 재빨리 崔致白을 시켜 이를 대응하였으므로 被害를 막을 수 있게 된다. ⑤의 경우는 關羽가 피란 간 宣祖에게 나타

44) 「黑龍日記」(前掲書) p. 70. 인문

나 北漢山城(北漢寺)에서 재빨리 還宮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며, 형세가 위태로와지자 郭將軍(再祐)에게 나타나 國王을 모시고 다시 北漢山에 피란할 것을 재촉하기도 한다. 權寧徹本 李漢本 高漢本 등 說話漢文本系統이 關雲長說話가 더욱 강조되어 있다. 그밖에 이들 작품에는 조선 장수를 추천하고 부리는 대목도 黑龍日記 등과 함께 一般化되어 있다. 國王이나 將帥들에게 나타나 倭陣을 大破할 秘計를 알려주기도 한다.

한편 關雲長 奉祀說話는 崇田大本 延世大本 權寧徹本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개 戰亂後 星州·南原·古今島 등지에 神位를 모시고 祭祠를 받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權寧徹本의 경우는 좀더 具體化되어 있다. 戰亂이 끝난 후 關雲長은 문득 宣祖에게 顯夢하여 작별을 고한다. 그러자 國王은 그의 祠堂을 지어 祭享할 것을 命한다. 星州에도 北漢山城에도 關雲長을 祭祀하는 祠堂을 짓는다. 그러자 關雲長이 다시 顯夢하여 畫像을 얻어 등신을 만들어 위하면 다시 한번 朝鮮을 구하겠다고 맹세한다. 江陵 땅 조비서의 집에 가 화상을 얻으라는 王命을 받아 李恒福이 길을 재촉한다. 恒福이 數日間의 길을 재촉, 한라산 속에서 날이 저물어 老翁이 사는 집을 찾아 들어간다.

「나는 과연 이 손 실영이더니 그뒤 오실줄을 알고 운중으로 화상을 가지고 지드리느니 가지고 가라 하고 화상을 닦여준니 오송이 바라보니 그 얼굴이 더초빛 갖고 솜작슈의 눈을 크기 부러셔고 황금투구의 순금갑을 입고 청봉도롤 노피 드러시며 겨토마상의 주층으로 말굽이오 나는드시 드러시니 이 기협 혼 명중일네라」⁴⁵⁾

한라산 신령이 바친 關雲長의 畫像을 얻어가 國王이 친히 奉祀하면서 이 작품은 大團圓을 이룬다. 여기서 보면 마치 李恒福이 江陵 子午谷을 헤매다가 얻은 如松의 畫像求得說話와 倣似하다.

이처럼 實戰에 있어서는 國力이 모자라 남의 힘을 빌리려 온갖 手段을 다하였지만 作品에선 그런 卑屈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排明의 입장에서 서 있다. 이것이 바로 士大夫들의 의식을 뛰어넘는 民衆들의 意識水準이다. 關雲長이 明王의 아우이긴 하지만 宣祖의 兄이다. 이를 볼 때 民衆이 숭앙한 關雲長은 곧 우리의 守護神이다. 李如松이 回軍하려는 트집을 叱責하는 것도 關雲長이요, 如松의 人間的 한계를 뛰어넘는 關雲長의 超人間的 활동이 이를 입증해 준다. 더우기 民衆은 關雲長을 내세워 自身들의 억압된 慾求를 間接的으로 滿足시키려 하였다. 여기 表出된 민중의 의식은 소극과 비속이 아니라 오히려 이같은 歷史를 否定하려는 強烈한 안간힘이다⁴⁶⁾.

關羽 信仰이 받아들여진 것은 壬亂을 前後한 三國誌演義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그 信仰

45) 權寧徹本 「壬辰錄」 p. 26. 인문

46) 林哲鎬, 「壬辰錄群研究」(延世大大學院) 1977. p. 112 참고

의 具體化는 亂後 關王廟 形成에서였다. 처음은 한 中原의 단순한 忠義將으로서였으나, 援兵을 맞고 그들에 의해 關王廟가 세워지면서 關王은 차츰 中原將이 아닌 朝鮮의 守護神으로 탈바꿈하기에 이른다. 참담한 戰亂을 겪는 동안 民衆들은 忠義를 갖춘 英雄을 갈망하고 높이는 경향이 차츰 늘어갔는데, 이 무렵 道敎적인 또는 巫俗의 信仰을 타고 關雲長도 섬김을 받게 되었으며, 崔瑩 林慶業 李舜臣같은 우리 장수들이 함께 信仰되었다.

「임진록」에서 보는 關羽는 이미 우리 民衆들의 마음 속에 심어져 그들의 慾求를 充足시켜주고 戰亂과 不安을 제거하며 忠義를 다하는 조선의 救援者요 守護神으로 변모를 보이고 있다.

(5) 崔日景의 解夢 · 忠言說話

① 說話의 性格

최일경은 異本에 따라 최일령 최일정 또는 김희문으로 변모되어 있는 바, 물론 역사적 실제 인물은 아니다. 다만 人物의 性格을 역사적으로 比定하여 볼 때, 黃允吉 金誠一 兩使의 相反된 報告를 토대로 한 黨爭의 視角에서 상징적으로 부여된 名稱으로 볼 수 있음이 그 하나요, 또 하나는 당시 이미 十萬養兵을 주장한 栗谷 李珣나 持斧伏關로 吉州에 定配된 바 있는 重峰 趙憲, 李舜臣의 救命을 위하여 앞장섰던 鄭琢 같은 節直한 人物이 바로 최일경이 아닐까 推定된다. 作品 속에서 보면 최위공이 최일경을 낳는 誕生說話에서 비롯하여 宣祖의 꿈(계집이 벼단, 기장자루 또는 담배씨를 이고 대궐로 들어오는 꿈)을 倭亂의 兆朕이라 解夢한 죄로 謫地 주로 東萊로 流配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謫所의 方向에서, 더우기 流配당한 자의 첫 目擊으로 壬辰大亂이 勃發하는 構成法을 通하여, 곧 宣祖가 自身の 과오를 뒤우치는 行爲로 연결시키고 있다. 최일경은 亂前에 이미 非凡한 出生과 成長過程에서부터 知鑑力과 先見之明을 지녔으나 現實에 어두운 統治者의 誤判으로 削奪官爵되어 流配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막상 亂이 勃發했을 때는 直接 罪囚의 몸으로 東萊府使를 찾아가 倭侵에 抗拒할 것을 권유하며, 戰亂 수습과 지휘를 위해 먼 蒙塵地 義州까지 달려가기를 서슴치 않는다. 그는 지체없이 請兵을 권유하고 名將들을 천거하고 軍糧을 마련하며 事態에의 적절한 對備와 豫言을 서슴치 않는다. 여기에는 朝鮮朝 傳統의인 君臣關係 愚君賢臣의 對照的 忠誠이 如實히 부각되어 있다.

최일경의 誕生은 대개 佛寺에 施主한 功德이나 關雲長의 顯夢이 媒介되어 있다.

「상제 亨교하시되, 이 아히는 너 슬하의 두고 밋일 사랑하더니 인간화복 꾸민 문서 한권을 일은 죄로 인간의 죄하하되 널노하여곰 암양하라 하시기로 다려다가 부인께 드리오니 부인은 귀히 길르압쇼셔 亨

고 간더 읍거 놀 부인니 놀나 씨다르니 일장춘몽이라」⁴⁷⁾

道敎思想을 바탕으로 한 關雲長의 이 胎夢은 결국 十朔만에 최일경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며, 遠竄된 일경이 蒙塵간 宣祖를 찾아가 相會하는 대목에서 보면

「전하 일회 일비하스 일경의 손을 잡고 용누를 흘니시며 왈 과인이 불명하여 경을 천니 밋게 보너고 이갓치 더환을 당하니 누를 원망하리요. 주후로 경을 잊지 못하여스나 마춤 부리지 못하고 오날 경을 더하니 도로혀 꿈갓도다. 그러하나 경은 혐의치 말고 방칙을 의논하라」⁴⁸⁾

라고 하여 國王의 위우침을 역연히 그려내고 있다. 이로부터 일경은 온갖 노력과 지혜를 기울여 國王을 설득하고 보좌하게 되는데, 대충 최일경의 활동상을 話素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① 최일경의 誕生
- ② 최일경의 解夢
- ③ 東萊 謫所 遠竄
- ④ 蒙塵地 義州에 國王을 찾아감
- ⑤ 勇將 金應瑞를 薦舉

異本間 崔日景 話素 分布圖

異 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黑龍日記		○								
延世大本	○	○	○	○	○	○	○		○	○
鄙本 A	○	○	○	○	○	○	○	△	○	○
慶北大本					○		○		○	
國圖本	○	○	○	○	○	○	○	○	○	○
黑龍錄		○	○	○	○	○	○	○	○	○
李能雨 B		○	○	○	○		○	○	○	○
金良善本			○	○	○		○	○	○	
李能雨 A	○	○	○	○	○	○	○	○	○	○
李能雨 C	○	○	○	○	○				○	
鮮壬錄	○	○	○		○	△	○	△	○	○
金完燮本	○	○	○	○	○	○	○	○	○	○

47) 國立圖書館本 「壬辰錄」 p. 2 인문

48) 上揭書 p. 21 인문

- ⑥ 中原請兵을 勸誘
- ⑦ 倭將 殺害 計略을 말함.
- ⑧ 請兵 拒絕당한 후 스스로 來援한다고 함.
- ⑨ 回軍 沮止위해 國王 痛哭케 함.
- ⑩ 金守業에게 軍糧米를 調達케 함.

위의 도표에서 보면 최일경의 ①~⑩ 話素는 거의 共通的으로 갖추고 있으나 轉寫 再創作 過程에서 無作爲로 더러 話素들을 빠뜨리고 있을 뿐이다. 다만 國漢本 崇田本 京板本 世昌本 등 歷史 사실 중심의 異本들과 權寧徹本 李漢本 高漢本 등 說話 漢文本系列의 異本들이 전혀 架空의 최일경의 話素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特徵이 나타나고 있다. 黑龍日記에는 解夢者가 김희문으로 되어있을 뿐 다른 話素는 없으며 慶北大本은 ⑤⑦⑨의 세 話素만 갖추어 說話 漢文本 계열의 변형임을 말해준다. 특히 說話 漢文本系列은 최일경이 등장할 자리에 關雲長이 代替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앞서 보인 바와같이 關雲長은 還生치 못한 神靈으로 明나라와 朝鮮을 연결하는 일들, 援兵 說得을 현몽하고 敵兵을 격퇴하여 戰勢를 左右하는 守護神의 役割을 하고 있으나, 최일경은 한 忠直한 臣下의 입장에서 주로 內國의 黨爭의 立場을 反省하고 民族 自活의 計策을 함께 議論하고 豫言하는 슬기를 주는 人物의 役割에 局限하고 있음이 特色이라 하겠다. 최일경은 敍上的 役割 말고도, 謫所에서 倭侵을 目睹하고 栗谷의 遺書를 전해 받으며 囚獄된 李舜臣의 釋放을 上疏하며 王과 접촉이 잦은 忠臣들의 입을 통하여 일경을 귀양보냈던 王의 愚를 자주 讒우치게 하고 있다. 鄙本A 鮮壬錄은 ⑧의 예언 대신 再請兵을 要請하는 積極的 관역자로 변모하고 있다. 金起東本은 최일경의 死亡說話까지 곁들이고 있어 舊小說 主人公의 通時的 구성법을 그대로 도습하고 있다.

어쨌든 최일경과 國王의 관계에서 보면 민중들은 당시 封建王權에 대한 직접적 否定과 拒否의 立場에서라기보다는 王權을 圍繞한 權臣들의 權力 투쟁과 否定 批判의 派爭의 視角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戰亂 勃發 직후에는 現實的 官僚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던 國王이 架空의 人物인 최일경의 말에는 無條件 服從이 있을 뿐이며 그의 言動에만 追從하는 傀儡化한 權威를 드러내 보일 뿐이다.

㉠ 崔日景의 正體

먼저 東西黨爭이 빚은 戰亂의 反省의 시점에서 黃允吉 金誠一을 추적해 보자. 전란 직전 通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兩使의 보고는 서로 엇갈리는 것이었다. 正使 黃允吉(西人)은 秀吉의 眠光이 炯炯하여 膽智가 있어 兵禍가 있을 것이라 復命하고 副使 金誠一(東人)은 눈이 쥐와 같은 庸劣한 인물로 침략의 기세가 전혀 없다고 보고하여 오히려 誠一을 堂上官에 올리

고 이에 앞서 各道에 명하여 방비를 풀게 한 역사적 사실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東人의 처사가 마땅치 못하여 작품 가운데서 黃允吉이 崔日景으로 굴절되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⁴⁹⁾ 사실 당시 東人政權이 政爭에만 혈안이 되어 國防을 소홀히 했던 사실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니 書狀官으로 양인을 수행했던 許篈이 東人이면서도 黃允吉의 말을 옳다 하여 서인의 칭찬을 산 사실이나 黃允吉의 從事官이었던 黃進이 <김성일이 죄를 받을까 두려워 국왕을 기만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에서도 民心의 推移를 읽을 수 있다. 兩便의 보고가 있는 직후 곧 大亂이 발발하였고 國基가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참상을 겪은 민중의 입장에선, 최일경의 말을 믿지 않고 流配시켰다가 전세가 위급해지자 오히려 그의 말을 따라 전란을 처리해 나가는 구성법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⁵⁰⁾

李珣은 東西分黨의 조정적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兩派의 和解에 힘쓰던 李珣도 결국 執權黨인 東人의 비난을 받고 죽는다. 그는 亂前에 이미 十萬養兵으로 國防을 強化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朝臣들은 모두 이에 反對 意見이었고 柳成龍까지 無事한 때에 養兵으로 오히려 禍를 自招한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후 壬亂을 당하매 栗谷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成龍은 萬難을 겪게 되었을게 成龍이 비로소 栗谷의 先見之明을 알고 그의 충고를 듣지 않음을 후회하였다고 한다. 이런 예언적 진실이 崔日景이란 인물로 내세워졌을 공산이 크다.

重峰 趙憲 역시 錦山 싸움에서 七百義士와 함께 忠死한 強硬 一邊倒의 人物이었다. 鄭汝立의 謀反을 알고 여러 차례 上疏한 바 있으며 己丑(선조 22)에는 持斧伏闕로 朝廷의 得失을 논하는 上疏를 올려 吉州에 定配되기도 하였고 辛卯(선조 24)에는 秀吉의 使者(玄蘇·宗義智)가 와 日本이 명나라를 치는데 길 빌기를 청한다는 말을 듣고 沃川서 徒步로 白衣上京하여 日本의 內心이 음흉하니 答使의 목을 베라고 上疏하기도 하였다.

「신이 비록 지식이 천단하나 그간 천문을 살펴보온즉 티백성이 동으로 조츠 북으로 가로지르고 여러 가지 저변이 나오되 인심이 흉흉호와 운기 날로 희이호오니 조만간에 변란이 이슬까 호오니 북결성상은 솔피샤 불우지변을 방비호쇼셔호였거늘 鈞경이 이 상소를 보고 卽覺, 이런 티평 성덕에 도현이 요언을 너여 인심을 요동케 호오니 그 죄 비경호오이다. 복원 전하는 도현을 원찬호쇼셔」⁵¹⁾

이는 災變을 보고 變亂을 예언한 趙憲이 妖言을 한다 하여 遠竄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거니와, 조현의 상소로 吉州定配를 당하는 과정은 최일경의 해몽으로 東萊竄遠되는 사실과 상응한다.

49) 壬亂이 발발하자 金誠一은 拿命을 받아 잡혀 죽음을 당한다. 「금부도서가 이르러 나명을 전하 니 이는 다른 연피 아니라 처음에 성일이 일본으로 조츠 도라와 왜인이 죽히 근심업다 호였는고로 상이 성일노 국수를 그르케 호다호스 업지를 나리와 나리호시니 장춧 불축흔 지경에 이르렀더라」(京板本 卷上 p. 16)

50) 李炯錫, 「壬辰戰亂史」戰役前의 概說條 pp. 100~103. 崔南善, 「壬辰亂」(東明社) 1935 「影響篇」 참고

51) 京板本 「壬辰錄」 卷上 pp. 5~6 인문

3. 結 論

지금까지 壬辰錄의 構成 骨格을 說話的 側面에서 검토해 왔다. 그 중 泗溟堂, 李如松이나 金應瑞·姜弘立은 實在의 人物의 虛構의 구성법을 통해 民族感情을 忿怒로 몰아간 모티브들이며, 關雲長과 崔日景은 魂靈이나 象徵의 人物로 現實 속에 나타나 戰亂을 豫言하고 직접 指揮 督勵하는 勝利의 守護神役을 맡고 있다. 이들 說話의 意味는 대략 다음과 같이 集約된다.

泗溟說話는 講和使로 건너가 三千被虜를 송환해온 說寶和尚으로서의 역사적 근거가 바탕이지만, 休靜과 연결된 神通力과 道術을 배경으로 倭國을 降伏받고 倭王을 굴복시키는 報復說話로 변모되어 있다. 특히 倭王이 生佛을 시험하는 갖가지 計略을 베풀다가 泗溟堂에게 끝내 굴복하고 마는 구성법을 통해, 움추렸던 民族感情의 伸張에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다.

金應瑞 姜弘立이 時代를 거슬러 壬亂의 主役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初志를 一貫하지 못하고 中途에서 굴욕적 投降을 해버린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한 民衆들의 분노와 아쉬움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投降은 했으나 끝까지 志操를 지키다 죽은 金應瑞를 再登場시켜 祖國을 背反한 弘立의 목을 베고 自決하는 對照的 성격 설정을 통해, 敗北로 위축된 민족 정기를 倭國征伐로 설분해 보려는 意圖를 뚜렷이 浮刻시키고 있다.

李如松說話는 對明 屈辱意識의 集約的 表現이다. 굴욕적 請兵過程에서 비롯하여 援兵將로 渡江時 갖가지 트집과 王相을 핑계로 回軍하려던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李如松이 朝鮮人이 된 것은 援兵將으로서의 그의 期待 때문이었다. 그러나 終戰 후 如松이 朝鮮의 地脉을 자르고 朝鮮王을 貪하다가 山神靈에게 쫓겨가는 과정을 통해, 당시 士大夫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宗主國을 민중들이 어떻게 意識하고 있는가를 分明히 하고 있다.

關雲長은 中原의 將帥이면서 救援의 朝鮮神化하고 있는데 큰 意味가 있다. 劉備 張飛를 각기 中原天子와 朝鮮王으로 設定해 놓고 關羽의 魂靈으로 하여금 그 사이에서 兄弟之誼를 호소케 함으로써 戰爭의 어려움을 豫示的으로 잘 풀어 나가고 있다. 關羽가 朝鮮의 救援神이 된 것은 三國志演義와 關王 奉祠의 영향이라 하겠으나 그의 氣質이 民衆 生理에 共感帶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崔日景은 순연한 架空의 人物이나 두가지 側面에서 그 象徵性이 分析된다. 하나는 東西朋黨이 고질화되었던 당시에 戰亂을 예고한 黃允吉의 意思가 反對黨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통하여 편파성이 後悔를 불러온다는 警告의 의미요, 또 다른 하나는 李珣나 趙憲같은 直言者나 國防強化論者의 意見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自省의 意味다. 戰亂을 예언한 崔日景이 분노를 사 謫地에 流配되지만 막상 전란이 일어나자 崔日景의 지시에 屈從하

는 國王의 後悔가 이를 입증한다.

壬辰錄은 민중이 의식한 壬亂의 反省과 忿怒의 기록이다. 그러기에 崔日景의 指示나 關羽의 陰佑로 전란을 승리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敗北의 杼우침과 報復感이 되려 日本征伐에 나서고 倭王을 降伏받으며 援兵將 如松을 追放하기도 한다. 한편 壬亂의 英雄들은 항상 民衆편에서 싸우다 不當한 權力에 희생된 人物들이다. 그러기에 壬辰錄은 民衆의 文學이며, 어디까지나 민중의 自省과 忿怒를 상징화한 說話의 集成體라는 데서 그 價値性이 높이 認定된다.